


|   |       |  |   |  |  |
|---|-------|--|---|--|--|
| <br><b>인천광역시</b> |       | <b>보 도 자 료</b>   |   | <b>재외동포청 최적지</b><br><b>인천</b> <small>본입니다</small>                  |  |
|   |       | 배포일자   | 2023년 3월 22일(수)<br>총 5매                       |  |  |
| 담당<br>부서  | 문화유산과 | 담 당 자  | • 시사연구팀장 박진영 ☎440-8381<br>• 담당자 정이슬 ☎440-8378 |  |  |
| 사진(이미지)   |       |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 참고자료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  |
| 보 도 시 점   |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인천역사문화총서 제95호~97호 발간

- 인천의 역사, 문화유산 등을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작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의 역사와 문화유산 등을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인천역사문화총서 제95호~97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인천역사문화총서 시리즈는 2003년 발간된 제1호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시작으로, 매해 고문서 번역서, 문화유산, 자연환경, 생활과 문화 등 다양한 주제의 도서들을 발간해왔으며, 현재 97호 발간에 이르고 있다.

제95호 『개항 이후 인천의 외국인들』은 1883년 개항 이후 제물포 일대를 활동하며 족적을 남긴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타운센드상회를 운영했던 미국인 타운센드, 성누가병원을 운영하며 의료·교육활동에 힘썼던 랜디스를 포함해 경제, 종교,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던 서양인, 중국인, 일본인들의 활동 내용을 소개하고 관련 사진(인물, 건축물)을 수록했다.

제96호 『인천의 묘역과 석조미술(上)』은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강화도의 고려 왕릉부터 조선 전기 사대부 묘역의 역사적·미술사적 가치를

소개하는 책이다.

고려 왕릉·조선시대 사대부 묘역 조성의 역사적 변천과 묘 주인의 인물 내력, 묘역의 구조 및 특징, 묘역 곳곳에 배치된 석인상 및 석수 등 석조물을 미술사적 시각에서 분석했다. 본문의 이해를 돕고 도서 내용의 보완을 위해 석조물을 실측한 자료 및 묘역 분포 지도, 필자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 등을 부록으로 수록했다.

제97호 『(역주)인천항안 I (1896)』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자료 『인천항안(1896~1909)』 중 1896년도 기록을 번역한 도서다. 이 자료는 1883년 개항 이후 개항장 사무를 담당한 인천 감리서(監理署)의 공문서를 취합한 책으로 조계의 변천, 외국인들의 활동 및 개항장 내 사건·사고 등을 기록했다. 도서 내용을 보완하고, 내용의 역사적 정확성을 위해 당시대 자료 『조선왕조실록』, 『일본영사관기록』 등을 활용했다.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에 발간하는 책들이 시민들이 인천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향후 발간할 도서들에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 고 말했다.

이번에 발간한 역사문화총서 3종은 관내 중·고등학교 및 도서관, 유관기관 등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시 대표 홈페이지(인천소개>인천역사>역사자료실>인천역사문화총서) 및 전자책(e-book) 홈페이지 ‘문화/관광>역사자료’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책 3종 표지

○ 95호 『개항 이후 인천의 외국인들』

인천역사문화총서 95

## 개항 이후 인천의 외국인들



인천광역시

○ 96호 『인천의 묘역과 석조미술(상)』

인천역사문화총서 제96호

# 인천의 묘역과 석조미술 上



 인천광역시



○ 97호 『(역주)인천항안 I (1896)』

